

3국 환경장관 황사개선 협력 등 공동합의문 서명

- 황사 저감을 위해 3국과 몽골 간 협력을 통한 공동조사 등 대책 마련 합의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청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4)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황사저감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올해 6월에는 3국과 몽골이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시작한 바, 앞으로는 3국 협력을 통해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황사 문제가 향후 3국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장관에게 제안하였고, 삼국은 상호 협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한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방류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 토론회(포럼)이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청년 토론회(포럼)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영감을 주는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 Towards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Nature: Inspiring Education for the Future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한·일·중 환경 장관회의(TEMM) 환경상’을 수여했는데, 우리 측 수상자로는 ‘동북아 황사 발생 및 황사 저감을 위해 사막의 초지 생태계 복원 조사 연구에 기여한 문새로미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선정되었다,

한화진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황사,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한 각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TEMM24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국제협력과	책임자	단 장	이형섭	(044-201-6831)
		담당자	사무관	김연수	(044-201-6573)

□ **배경**

-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99년 이래 매년 3국이 교대로 3국 환경장관회의(TEMM) 개최
- 개최 순번(3국 순)에 의해 제24차 회의(TEMM24)는 일본에서 개최

한 국		중 국		일 본	
제1차	서울	제2차	베이징	제3차	도쿄
제4차	서울	제5차	베이징	제6차	도쿄
제7차	서울	제8차	베이징	제9차	토야마
제10차	제주	제11차	베이징	제12차	홋카이도
제13차	부산	제14차	베이징	제15차	기타큐슈
제16차	대구	제17차	상하이	제18차	시즈오카
제19차	수원	제20차	쑤저우	제21차	기타큐슈
제22차	한국(영상)	제23차	중국(영상)	제24차	나고야

□ **제24차 회의 계획**

- (날짜·장소) 2023.11.3.(화)~4.(수), 일본 나고야
- (참석자) 3국 환경장관 및 관계자 등 20여명
 - (한국 대표단) 장관님, 기후변화정책관, 국제협력단장 등
- 주요 회의 및 행사
 - (양자회담) 한-일, 중-일, 한-중 환경장관 회담
 - (본회의)
 - ① 3국 장관 기조연설(국내 주요환경정책 소개)
 - ② 공동행동계획('21~'25) 이행성과 보고(日국장)
 - ③ TEMM 환경상 시상
 - ④ 부대행사(청년 포럼) 결과보고
 - ⑤ 공동기자회견(TEMM24 결과, 공동합의문 서명식, 질의·응답)